

“국장실 폐쇄 · 비서실 통합”

광주 광산구 年5,200만원 절감

광주 광산구가 국장실을 없애 연간 5,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각종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울들어 구청장과 부구청장 비서실을 통합하고 국장들의 자리를 실무부서에 전전배치, 4명의 비서실 전원을 줄여 연간 5,2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또 그동안 5~6단계를 거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결재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보고와 회의시간을 단축하

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대민업무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복합민원처리팀을 가동해 민원인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1. 1. 12(금)]

울산시 동구 1억이상 관급공사

他부서 평가반이 감사

울산시 동구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로 ‘부실방지 평가반’을 구성, 공사를 감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실방지 평가반은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 소속 건축 및 건설전문직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반은 적정시공, 불법하도급 거래, 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자 지정, 공사예산 책정, 관급자재 적정 수급, 감리원 근무상태, 일상감사지적사항 보완여부 등을 1~2차례 실시한다.

평가반에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구청 감사계와 구청장에게 보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 경고와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실공사 평가반이 구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1. 1. 10(수)]